

##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투쟁은 금속노조 투쟁”

고용승계 쟁취·고공농성 사수 금속 기자회견 ... “노동자는 쓰다 버리는 부속품 아니다”

금속노조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고용승계와 생존권 보장을 거듭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1월 16일 오전 구미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현장 고공농성장 앞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쟁취, 고공농성 사수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참담하다. 금속노동자가 생존권을 위해 왜 이렇게 어려운 투쟁을 해야 하는가?” 라면서 “닛토 자본이 18년간 천문학적 인 이윤을 가져가면서 노동자들에게 남긴 것은 정리해고뿐이다” 라고 분노했다.

장창열 위원장은 “닛토 자본은 당장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와 생존권을 보장하라” 라며 “고용승계 하는 날까지 금속노조 19만 조합원이 함께 책임지고 투쟁하자” 라고 당부했다.

고공농성 중인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은 “노동자는 쓰다 버리는 부속



품이 아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올라왔다” 라면서 “조합원 가압류, 철거방해금지 가처분을 인정한 법원과 농성장 단전 단수, 공장 철거를 승인한 구미시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라고 울분을 토했다.

최현환 지회장은 “닛토 덴코의 고용승계만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혜만 받고 제멋대로 폐업하는 일본 자본 먹튀 행각의 책임을 받드

시 문겠다” 라며 “외투 자본과 대결을 벌이는 이 투쟁은 19만 금속노조의 투쟁이다. 금속동지들이 노동자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바리케이드가 돼 달라” 라고 호소했다.

금속노조는 1월 2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농성장에서 개최한다. 노조는 고공농성장 사수 지부 순환농성, 평택 한국닛토옵티칼 고용승계 요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박정혜 수석부지회장, 소현숙 조직2부장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1월 16일로 9일 차를 맞았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100% 지분을 가진 일본 자본 닛토 덴코는 2022년 공장화재를 핑계로 위장폐업 의혹 속에 청산을 강행 중이다. 지난 8일 지회가 고공농성에 돌입한 저녁 구미시청은 농성장 철거를 승인했고, 12일 법원이 철거방해금지 가처분을 승인했다.

# “한화, 거제조선소 안전·보건 폭파. 노동자 사망”

## 12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폭발사고 중대재해 ... “한화오션 인수 뒤 시스템 무너져”

금속노조,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이 한화가 대우조선 인수과정 이후 노동안전보건시스템을 무너트려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등에 따르면 20대 하청노동자가 1월 12일 15시 19분쯤 한화오션 거제 옥포조선소 선박 방향타 제작 공장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에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6시 8분쯤 숨졌다.

금속노조,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경남본부는 1월 16일 오전 통영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한화 인수 7개월 안전보건 후퇴 노동자 사망, 실질 경영책임자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등은 한화가 2022년 대우조선 인수 과정 이후 안전·보건·환경 조직개약→ 안전보건시스템 붕괴→ 재해 진상 규명·재발방지대책 외면→ 공장 가동 강행이라는 악순환을 현장에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질 경영책임자 즉각 구



속 수사 ▲한화오션 전 사업장 작업 중지 명령, 특별 근로 감독 시행 ▲노조 참여 안전보건진단·시스템 진단 시행 ▲동료 작업자·현장 목격자 등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검사·치료 시행 ▲HSE 현장 안전직원 충원·지회 안전보건위원 증원 합의 즉각 이행 ▲중대재해 작업중지 시 하청

노동자 임금 보전 등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등은 기자회견 후 노동부 통영지청장 면담을 통해 노동조합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